

해외출장 결과 보고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일본의 식량위기 대응체계, 해외곡물 수입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조사 해외 출장
2. 출장목적:
 - 일본의 식량위기 대응체계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금년 8월부터 운영 중인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보완에 활용
 -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국제곡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조치경험, 대응체계, 장기적인 정책 방향 조사를 통해 조기경보 매뉴얼 수정 보완 자료로 활용
 - 주요 회의 및 조사 내용
 - 일본 농수성 관련부서 면담: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 운영 현황, 국제곡물 가격 급등 시 정부의 대응 방안, 해외 곡물 수입현황 및 유통체계, 해외농업개발 및 곡물수입사에 대한 지원 및 장기전략, 국제곡물 관련 일본 내 물가관리 정책 등을 조사
 - 곡물 수입업체(협회), 전농(우리나라의 농협) 면담: 곡물 가공 산업현황, 곡물수입 전략 및 유통경로, 해외농업개발, 곡물조달전략 등을 조사
3. 출장기간: 2015년 8월 31일~9월 4일 (4박 5일)

4. 출장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농업관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종진
농업관측센터	연구원	김지연

5. 출장지역 및 일정

- 방문지역 : 일본 동경
- 방문일정

일 시	이동 및 주요 일정	비고
8월31일(월)	○ 나주→인천공항→일본(동경) 도착	- 출국
9월 1일(화)	○ 일본 농수성 방문 - 식료안전보장과, 생산국 농산기획과/무역업무과와 업무협의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ies Corporation)방문	
9월 2일(수)	○ 일본 농수성 방문 - 국제부 국제협력과와 업무협의회 ○ 일본 곡물회사 Zen-Noh 방문 및 간담회	-
9월 3일(목)	○ 일본사료협회 방문 ○ (사)전일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금 방문	
9월 4일(금)	○ 일본(동경)→인천공항→나주	- 귀국

II. 주요 출장결과

1. 일본 농림수산업성 식료안전보장과 담당자 면담

- **면담자:** 와타루 이자와 씨(wataru_izawa@nm.maff.go.jp)
- **주요 면담 내용:** 일본의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 운영 현황 및 국제곡물 가격 급등 시 정부의 대응 정책

- 일본의 농림수산업 GDP는 세계 제 9위이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 순 수입국으로 식량 자급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최저 수준임.
 - 품목별로도 수입국이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옥수수, 밀, 콩, 쇠고기의 수입액은 상위 3개 국가에서 90% 이상을 차지함. 또한 돼지고기는 상위 3개국이 약 70%를 차지함.
 - 식품 소비도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 소비는 감소추세이며, 사료와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물과 유제품의 소비는 증가추세임.
- 이에 일본 정부는 곡물가격 급등, 식량 수입 두절 등 예상치 못한 요인이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의 일환으로 '긴급 식량 안보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지침이 수립된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제 적용된 적은 없음.
 - 국제곡물 가격이 크게 급등하였던 2007-2008년, 2012년에도 '레벨 0' 이상의 등급으로 판단되지 않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의 식량 안보가 위협되는 긴급한 상황에만 지침이 운영되는 실정임.
- '긴급 식량 안보 지침1)'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음식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빼놓을 수 없는 기초적인 것임. 따라서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수급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국민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보 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임. 이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제 2조에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여 생산, 가격, 유통의 대응책을 마련

1) 구체적인 긴급 식량 안보 지침의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내용이 방대하여 링크를 첨부함 (<http://www.maff.go.jp/j/zyukyu/ampo/pdf/ampo-shishin.pdf>).

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 * 협의회는 내각 관방, 내각 부 방위성,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업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책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대책 실시를 위한 체제 정비
 - ② 정보수집, 분석, 제공 체제 강화: 국내 외 수급 및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제공 체제 강화
 - ③ 공급의 확보 대책
 - 쌀, 밀, 사료곡물 비축 활용
 -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 수입 확보
 - 식품 산업 사업자 등의 폐기 억제, 규격 외 제품의 유통 등의 활동 촉진
 - 증산 가능한 품목의 긴급 증산과 열량 확보를 우선한 생산 전환
 - 종자, 종묘, 비료, 농약 등 생산 자재의 확보
 - 기존 농지 이외의 토지 이용
 - ④ 가격 유통의 안정 대책
 - 가격 동향 등의 조사·감시
 - 가격·유통의 안정을 위한 관계 사업자에 대한 요청·지도 등
 - 적절한 유통의 확보를 위한 매도, 수송, 보관 지침 등
 - 국민 생활 안정 긴급 조치법에 근거한 표준 가격 및 특정 표준 가격 설정
 - 국민 생활 안정 긴급 조치법 또는 음식 법에 근거한 할당·배급
 - 물가 통제 령에 의한 가격 통제
 - ⑤ 기타 대책
 - 석유의 공급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 농림업자 등에 우선적으로 할당, 농자재의 확보량에 따른 적정 농법으로의 전환 등

수준	판정 기준	예상되는 상황(예)
레벨 0	'레벨 1' 이후의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본의 대홍작 예상, 주요 수출국의 대홍작 및 수출규제 예상, 주요 수출국의 정치적 불안 및 사고에 의한 무역 혼란 등
레벨 1	특정 품목의 공급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쌀의 대홍작 발생, 주요 수출국의 수출규제 실시 등
레벨 2	국민 1인 1일 공급열량이 2,000 kcal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곡물, 대두 및 관련제품 수입의 대폭 감소 등

- 일본 정부는 단기적인 국제곡물 수급변동이나 국제곡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곡물 및 관련 식품가격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정부 정책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 과거 2008년, 2012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 시 식품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지원은 없었으며, 관련 사업자들이 상당부분 가격변동성을 흡수하여 일본 내 식품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의 이슈는 없었다고 함.
- 다만, 일본 정부는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을 국내 생산 증산을 통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두고 일본 내 곡물생산 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6명의 인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와 비슷한 국제곡물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매월 미 농무성 자료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음.

2. 일본 농림수산성 생산국 농산기획과/무역업무과 담당자 면담

- **면담자:** 아츠코 수기야마 씨(atsuko_sugiyama@nm.maff.go.jp)
만나부 야수하라 씨(mannabu_yasuhara@nm.maff.go.jp)
- **주요 면담 내용:** 해외 곡물 수입 현황 및 일본 내 유통 현황 조사
 - 일본은 MA 쌀 수입을 할 경우 매입위탁계약 입찰을 통해 쌀을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전달되나, SBS(매매 동시 계약) 수입방식과 같이 일부 실수요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국가가 매입하는 쌀 수입량이 66만 톤(현미)이며, SBS쌀 수입이 10만 톤(도정미)임.
 - MA쌀을 수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태국, 중국 등임.
 - 일반 수입 방식은 수입업자가 국가의 입찰에 참여하면, 국가 및 수입업체(낙찰업체)가 수입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국가가 수입업체에서 매입한 후 또 다시 입찰을 통해 자국 내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가공용, 사료용 등으로 판매됨.
 - SBS(매매동시계약) 수입 방식은 수입업자와 실수요자가 함께 국가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여 국가와 수입(실수요자)자 간에 특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국가에서 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과 실수요자에게의 매도를 동시에 수행. 주로 주식용으로 판매됨.
 - MA쌀의 판매는 일본 내 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국 내 밥쌀용 쌀로 사용되지 않는 용도(된장, 소주, 쌀 가공식품, 사료, 원조 등)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음.
 - MA쌀의 가공용 수요량이 수입량보다 적어 일부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해외 식량원조로도 활용

3.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협력과 담당자 면담

○ **면담자:** 미치야 오츠카 씨 (michiya_otsuka@nm.maff.go.jp)

○ **주요 면담내용:**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사례

○ 일본 정부가 일본국제협력단(JICA)를 통하여 브라질 세라도를 개발한 사례는 대표적 해외농업개발 사례로 꼽힘.

- 1973년 미국이 일본에 대한 콩 수출금수 조치로 안정적 곡물 수급 기반을 마련에 대한 일본의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자 1974년 브라질과 일본은 양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에 따라 197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세라도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이는 일본의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브라질 정부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여 성립될 수 있었으며 자금과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됨.

- 일본 측의 JADECO와 브라질 측의 BRASAGRO가 각각 49%, 51%의 지분을 갖는 민간합작회사 'CAMPO'를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JICA는 브라질에 농업기술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함.

- 세라도 개발 사업은 22년간(1979년~2001년) 3기에 걸쳐 총 684억 엔의 자금을 투입하여 총 33만 ha 이상의 면적에 600호 이상의 농가가 입식한 대규모의 농업개발원조 사업

- 세라도 사업으로 브라질은 1970년대에 거의 생산되지 않았던 대두를 연간 4,100만 톤 생산하는 세계 2위의 대두 생산국이 되었으며, 대두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후방 산업 발전과 고용이 창출되는 등 '식량생산, 지역개발,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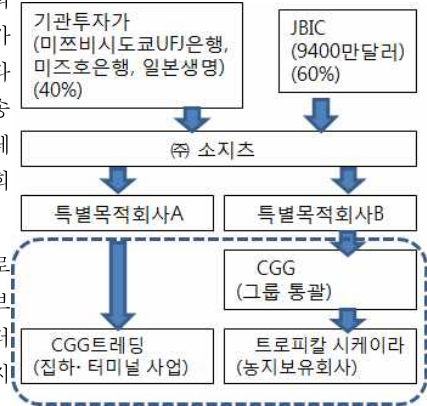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이나 곡물조달을 위한 정부의 직접투자나 정책 지원은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간접적으로 해외농업개발협회와 ODA 사업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역할은 필요로 하는 주체들(투자자, 관련 사업자 등)에게 정보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을 밝힘.

※ 이후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함(총 3건).

○ **브라질 곡물수송인프라 투자(소지츠) 사례**

- (주)소지츠는 해외농업개발협회(JBIC) 및 일본의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해 브라질에서의 농업 곡물 집하 수송을 하는 칸타가로 제네럴 그레이인즈사 (CGG)와 그 중심자회사인 CGG트레딩사에 출자



- 이후 SGG그룹과 공동으로 CGG가 사용권익을 확보한 브라질 북부 이타키항에 항만터미널, 내륙 사일로(창고), 농지 등의 개발에 투자

- 이는 브라질 북부의 곡물 수송 루트를 강화해 브라질산 대두, 옥수수 등의 아시아시장 수출을 계획하여 안정적 일본의 식량 확보에 공헌

* 기존 브라질 곡물의 아시아 수출 루트는 산토스항 등의 남부항에서 대륙남단을 경유하는 것이었음. 브라질의 곡물생산 확대에 따라 계속되는 채산 상태가 발생. 향후 북부 이타키항에서 파나마운하를 경유함으로써 채산회피와 항해거리단축이 가능해 짐.

[사업내용]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브라질 곡물 수출인프라 기업의 매수자금투자

- (주)국제협력은행(JBIC)은 2015년 6월, (주)토요타 상사에 의한 브라질 법인 NovaAgri사의 매수를 (주)미쯔비시 도쿄UFJ은행과 연계하여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
- 2014년 12월, 제1회 일본·브라질 농업·식량 대화에서 브라질 농업·식품산업의 발전, 양국의 무역 활성화, 물류의 개선에 관해 논의되었으며, 그 방향성에 입각하여 JBIC는 (주)토요타 상사에의 투자를 결정
- (주)토요타 상사는 브라질 곡물 집하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강 상류에서 강 하류까지를 잇는 공급 사슬을 확립하고자 하는 방침. 브라질산 곡물(대두, 옥수수 등)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안정적 공급체제를 확립하고 곡물 비즈니스를 한층 확대하는 것을 계획



- (주)토요타 상사는 곡물생산이 활발한 브라질 중·북동부에 자사창고를 갖고, 기존의 철도를 고쳐 이타키향에서 터미널 사업을 하는 NovaAgri사에 출자. 이를 위한 자금을 JBIC가 투자함으로 주요곡물의 안정공급체제의 확립·강화를 도모
- NovaAgri사는 브라질 주요 곡물 생산지역인 중·북동부의 자사 창고를 설립하고 철도를 통하여 이타키향에서 터미널 사업을 하는 브라질 법인인 (주)토요타의 매수액은 약 250억 엔으로 이중 JBIC는 13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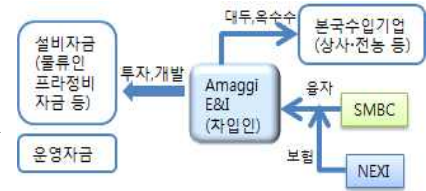
○ 브라질 Amaggi 형 NEXI 언타이트보험론(용자)

- 2014년 8월 일본은 민관연계를 통한 중남미 지역의 대두와 옥수수의 일본 내 안정적 조달 사업의 일환으로 브라질 농업회사인 Amaggi사²⁾의 투

[Amaggi사 투자 계획안]

2) Amaggi사는 브라질 최대의 대두와 옥수수의 생산 및 집하, 수출을 하는 대규모 곡물기업으로 곡물 집하 및

자에 대하여 일본무역보험(NEXI)에서 보험인수를 체결(2015.8.2.)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 이번 투자는 NEXI에서 최초로 농업투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결정된 것으로 Amaggi사, (주)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NEXI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약 6년 간 2억 달러를 투자함.
- 특히, 투자 기간 중 일정량의 곡물을 의무적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비상 시 일본에 대한 수출을 최대한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여 일본의 안정적 식량공급에 기여하도록 했다는 점은 기존의 해외곡물조달 투자와 차이점임.

4. 일본 사료제조협회 방문

○ 면담자: 츠토무 하세가와 씨(hasegawa.t@jafma.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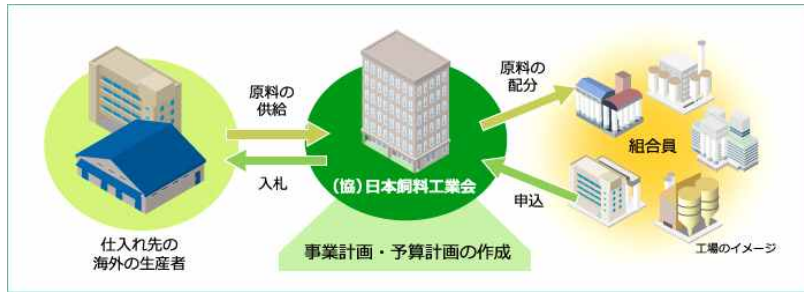
○ 주요 면담내용: 일본의 사료 산업 현황, 공동구매, 선물시장 이용 등 곡물 수입 현황 및 전략

○일본 사료제조협회는 49명의 조합원(74개의 사료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7년 4월 9일 설립되었음. 주요 사업내용은 ①사료 원료의 공동 구입 및 안정적 확보 ②사료곡물 비축 ③배합 사료 가격 안정제도 ④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 ⑤축산업 관련 경영 안정 및 진흥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료 원료의 공동 구매는 사료용 보리, 밀, 탈지분유, 유청분말, MA 쌀, 일본에서 생산된 사료용 쌀 등 제조 시 사용되는 원료를 조합원 간에 공동 구매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도모함. 사료 협회에서는 공동 구매 실시 할 때 사업/자금/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함.

- 이때 가격 경쟁은 상사에서 맡아서 하며,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구매하여 적정한 가격의 원료를 구매

수출이 매출의 90%를 차지함. 정식 명칭은 Amaggi e importacao Ltda 임.



○사료공업회에서는 사료 산업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1.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료 규제 방향성을 농림수산성과 협의 2.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사료 규제 및 경고 정보 등 강화 추진 3. 사료 업계의 동향이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정보 발신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정보를 공유 4. ‘안전 사료 제조 규범 (GMP)’ 등의 도입 추진 5. 새로운 품질 관리 제도에 관한 교육 등 6. 국제 사료 산업 연맹 (IFIF) 등에 대한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 외에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경영 안정에 노력함. 사료원료 비용 상승에 의한 가격차를 보전해 주거나 육우 비육 경영 안정 특별 대책 사업의 추진 및 협력, 기술 지원 및 임대사업 등 축산 경영에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사료원료 구매는 젠노계열 사료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합상사를 통하여 원료를 구입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구입방식과 차이점임. 종합상사들이 사료업체에 판매가능 가격을 제시하면 사료업체에서는 품목의 스펙과 가격이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종합상사에서 구매를 하는 방식임.

- 사료협회에 따르면 일본계 종합상사를 이용하여 원료를 구매하는 것과 곡물메이저로부터 원료를 구매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음.

-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한국, 대만 등 다른 주요 수입국)종합상사를 통한 구매가 많은 이유는 종합상사에서 먼저 곡물원료 구매사업에 진출하여 이점이 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대응함.

○상사들의 해외 원료곡물 확보를 위한 해외농장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과거 2013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시에 농장이 해외에 있었다라도 사울 수 없는 경우가 생김. 일본은 기본

적으로 국내생산 증대를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선 다변화(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방법을 사용.

5. 배합사료안정기금 방문

○ **면담자:** 마쯔바라 씨(hasegawa.t@jafma.or.jp)

○ **주요 면담내용:**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 사료곡물비축사업 등에 관한 조사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오일쇼크와 일본의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시기에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 처음에는 젠노와 축산단체, 축산농민 간 자조금의 형식으로 운영되다 1973년에는 정부의 유도에 따라 민간 배합사료기업의 참여로 (사)전일본배합사료가격·축산안정기금을 설립함.

○이상보전기금은 국가와 사료제조사가 각각 반씩 각출하여 마련하며,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 간의 평균보다 115%를 상회하는 경우 발동함.

- 해당 수입원료는 옥수수, 수수, 대두박, 보리, 밀, 미강 6품목임.

○통산보전기금은 생산자 500엔/톤과 사료제조 1,000엔/톤을 각출하여 마련하며, 사료가격이 직전 1년 간의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발동함.

○국제곡물가격 상승기인 통산보전기금은 2006년 4/4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발동하였으며, 이상보전은 2007년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2008년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발동함.

○이때, 지속적인 배합사료원료가격 상승으로 통상 보전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900억엔을 차입하였으며, 농축산업진흥기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무이자로 상환(2016년부터)하기로 함. 또한 배합사료가격안정제도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2008년 3/4분기부터는 통산보전 발동기준의 4% 추가보전을 정지시켰음.

- 2012년에는 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국 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이상보전’의 발동기준을 기존의 115%에서 112.5%로 인하하였으며, 통상보전기금 부족분에 대하여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

6.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방문

○ **면담자:** 사치오 나카지마 씨(nakajimas@alic.go.jp)

쇼에이 이자와 씨(izawa@alic.go.jp)

○ **주요 면담내용:** 농축산물 가격 안정관련 정책

○ 농축산업진흥기구(alic)는 일본 농축산물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수급 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정보 및 대책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채소 및 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 시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가격안정제도,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야채 가격 안정 제도는 독립 행정법인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서 야채 생산 출하 안정법(1966년 법률 제 103호)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 채소 가격 안정 대책 사업, 계약 채소 안정 공급 사업, 특정 채소 등 공급 및 산지 육성을 위한 가격차 보조사업 등이 있음.

○ 지정 채소 가격 안정 사업은 대상 채소(14개)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시 미리 적립한 기금을 재원으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생산자와 국가가 적립 한 기금을 재원으로 판매한 채소의 평균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의 90%(보증 기준액)를 밑돌았을 경우 보증 기준 액과 평균 판매 가격과 차액을 보전하는 (보급금을 교부하는) 사업

○ 계약 채소 안정 공급 사업은 채소 계약 거래에 따라 생산자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하 단체와 실수요자가 미리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채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체에 교부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의 계약을 지정하여 채소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임.

○ 특정 채소 등 공급산지 육성 가격차 보급 사업은 특정 채소(35개 품목)의 채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농가의 경영 피해를 완화하고 차기 작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채소 가격 안정 법인이 실시하는 특정 채소의 가격 차이 보급 교부금 등 교부사업에 대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 농축산물진흥기구는 채소 이외에도 축산물과 설탕, 전분에 대하여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통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이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이 높아져서 문제가 된 적은 크게 없다고 함.

- 가격 보전제도와 별도로 가격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소비 촉진이나 대체 품목의 소비 촉진 등의 홍보를 통해 수급 조절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함.

7. 일본 Zen-noh 방문

○ **면담자:** 신 이노우에 씨(inoue-shin@zennoh.or.jp)

류지 모리 씨(mori-ryuui@zennoh.or.jp)

신지 카츠카와 씨(katsukawa-shinji@zennoh.or.jp)

○ **주요 면담내용:** 젠노의 국제곡물 조달사업

○ 젠노는 전국 농업 협동조합 연합회의 약칭으로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전국의 농업협동조합·경제 농업 협동 조합 연합회·전문 농협 연합회 등의 연합 조직임. 젠노는 일본의 ‘농업 협동 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산 자재, 생활 용품 등의 공동 구매와 농축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업 관련 기술·경영에 관한 지도 등을 실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곡물조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사료용 곡물조달의 주축이 되고 있는 젠노는 자회사인 ZGC(Zen-Noh Grain Corporation), CGB(Consolidated Grains & Barge)를 통해 일본 곡물 수입량의 30%를 현지에서 직접 조달

- 1988년에 50%의 지분을 매수한 미국계 집하·운송전문회사인 CGB는 미국 콘벨트에서 미시시피강을 지나 뉴올리언스 항구까지 이어지는 29개의 강변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음.

○ 젠노는 미국에서 사료곡물을 수입 시 멕시코만에서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미시시피강 동결, 멕시코만 부두파업 등으로 선적이 지연)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ZGC를 설립함.

- 설립 시 일부 소수의 관리자를 제외한 100명 이상의 모든 인력을 현지 미국인을 고용하여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실시함.

- 그러나 전적으로 미국 내 곡물협동조합으로부터 곡물조달에 의존함.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협동조합들이 수익성 악화로 일반기업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민간 상인들로부터 곡물을 매입함.

- ZGC(Zen-Noh Grain Corporation)는 1979년 전농이 미국 내 설립한

곡물 수출회사로 뉴올리언스 항만에 수출엘리베이터³⁾를 소유하고 있음. 1970년 오일쇼크, 식량위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 경쟁력을 가지고 사료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쟈노의 자본으로 설립함.

- 미국에서 수출되는 곡물의 약 60%가 뉴 올리언스항에서 수출. ZGC의 선적량은 뉴 올리언스항에서 세계 최대규모로 옥수수, 콩의 경우 수출량의 20%를 차지함.
- 쟈노 엘리베이터는 10만 톤을 능가하는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60개의 보관빈(루브), 12개의 선적빈(루브)이 있음. 보관빈(루브)의 용량은 1개당 1,550톤이로 이는 바지선 한 채에 상응하는 크기임.
- 바지선을 통한 반입이 전체의 95%를 차지함. 반입능력은 바지선 2,500톤/h, 짐차 1,300톤/h, 트럭 375톤/h 임.
- 선적능력은 3000톤/h, 파나막스급을 하루에 선적이 가능
-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진장치를 통해 분진제어를 철저히 함. 또한 경사식 벨트 컨베이어 사용은 분진폭발사고 위험을 저감시키는 기능 이외에도 곡물품질에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 2004년 ISO9001 인증 획득, 프로세스에 개선을 지향
- 본사에는 약 40명, 엘리베이터에는 약 150명이 근무

[쟁�노의 엘리베이터 스펙]

- 중서부로 부터 1-3주에 걸쳐 운반된 곡물을 하역, 바지선 한척 당 약 45분에 하역이 가능하며, 계량, 샘플링, 품질체크 후 보관빈(루브)에 이동
- 짐차용 시설에서는 100차량 단위로 짐차(9,000톤)를 수용. 1,300톤/h 가능. 루이지애나 주 근교 농가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곡물을 운반
- 콘트롤 룸(제어실)에서는 최신시스템을 도입, 자동상황이나 곡물의 흐름, 조업효율, 이상이 없는지 등을 늘 파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한층 더 개선에 힘씀.
- 24시간 자동, 효율적으로 곡물을 반입, 빠르게 선적이 가능함. 전농엘리베이터는 파나막스 선박(55,000톤)을 24시간 이내에 선적이 가능. 또한 옥수수나 콩 뿐만이 아닌 여러 종류의 분별유통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여러 품목을 함께 선적도 가능함.

3) 바지선, 짐차, 트럭을 이용해 도착하는 화물을 보관, 선적하는 작업을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설계. 품질관리, 비유통전자조합 곡물 등의 이력추적도 동시에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무역환경 변화로 곡물 매입에 어려움을 느낀 쟈노는 자체 곡물 매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CGB를 인수하였으며, 현재 CGB에서 확보하는 곡물의 40~50%는 일본으로 들어오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함.

- CGB 인수 시 쟈노는 해외 M&A 경험이 풍부한 이토츄 그룹과 공동으로 매입하게 되며, CGB를 매입함에 따라 미국 농가에서 일본 농가까지 연결되는 자체적인 곡물 조달 경로를 확보함.
- CGB는 미 중서부에 위치한 곡물 집하 회사로 미시시피강,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아칸소주 지역에 60개 이상의 곡물 엘리베이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생산자로부터 곡물을 조달함. 광범위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곡물 거점을 가지고, 기상요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품질의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최근에서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 신설 및 매입 등을 통하여 집하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CGB스텝은 수천의 농가와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곡물의 생육상황, 수확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 직접 농가로 부터 구매하며, 오랜 세월 구축된 생산자와 CGB스텝과의 신뢰관계가 있음.
- CGB는 소비자의 니즈에 응하기 위해서 ‘IP핸들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IP 핸들링 프로그램이란? CGB는 비유통전자조합의 옥수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농가에 대한 학습, 종자의 선정, 생산, 보관, 유통에 이르기까지 메뉴얼을 통해서 분별 관리하는 프로그램

- 전농그레인인 CGB가 집하하는 중서부 산지로부터 일본의 고객에게 연결하는 밸류 체인의 물류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CGB, ZGC 스텝의 일본 방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크나큰 특징. 일본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요구되는 높은 품질의 수준, 니즈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쟁�노의 사료원료 유통경로는 현지 곡물농장에서 농장 및 강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수출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항만의 사이로로 이동 후 쟈노의 사료회사들에게 수입되어 축산농가에게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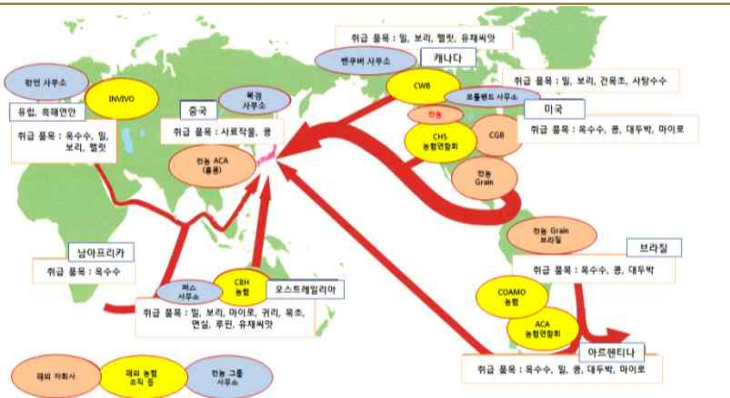
- 이때, 농장 및 강변엘리베이터 이동은 CGB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

엘레베이터 이동은 ZGC에서 담당함.

○젠노가 해외곡물조달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유통설비에 직접투자가 어려운 곡물 생산국에 대해 해당 국가의 농협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점, ZGC 설립 시 부사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현지인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등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펼친 점, 마지막으로 일본 내 안정적 수요처(젠노가 소유한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

- 젠노는 자국 내 안정적 원료곡 조달을 위하여 해외곡물조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자금은 100% 젠노에서 출자하였고, 이때 정부지원은 없었음.
- 특히, 젠노도 일부 메이저 업체로부터 곡물을 확보하나 자체적으로 각국의 농협들과 협력을 맺어 곡물을 확보한 점은 젠노 측에서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음.
- 사업을 시작한지 30년 정도 되었는데, 사업 시작 후 20년 정도까지는 수익성이 매우 나빴으나,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함.

[젠노의 사료원료 유통경로]



○일본의 인구 및 축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되어 일본 내 곡물 수요처의 확대가 기대되지 않음.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처 다변화를 통한 대응과 남미의 신생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앞으로 젠노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여부의 주요한 사항이 될 것임.

- 특히, 중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소비증가로 곡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젠노의 새로운 판매처가 될 수 있음.